

제3주제
정보통신 번호정책의 방향

염 용 섭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목 차

I. 정보통신 번호정책 수립의 배경	37
1. 번호의 개념 및 중요성	37
2. 정보통신 환경 변화	38
II. 국내·외 번호관리 현황	39
1. 해외동향	39
2. 국내현황 및 현행 번호관리의 문제점	41
III. 번호자원관리 정책방향	44
1. 번호관리 정책방향	44
2. 번호부여의 원칙	44
3. 부문별 부여 원칙	45

I. 정보통신 번호정책 수립의 배경

1. 번호의 개념 및 중요성

○ 번호의 개념

- 정보통신 번호는 이용자들이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 통신망 및 사업자를 식별하고 상대방 가입자를 선택하는 수단

○ 통신사업의 경쟁촉진에 따라 정보통신번호의 중요성 증대

- 번호의 형평성이 사업자간의 공정경쟁과 직결됨
- 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공평한 번호부여가 필수적이며 공평한 번호부여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번호자원 확보가 요구됨
- 정보통신번호는 전파와 같이 공공재적 성격의 유한한 국가자원이므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 번호관리의 목적

- 사용자의 편이성 확보, 망의 효율성 증대, 공정경쟁 기반확보라는 다소 상충적인 목적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임
 - 번호자리수가 적고 체계적일수록 사용자의 편이성 증가
 - 번호가 체계적일수록 망의 효율성이 증대되나 번호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리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음
 -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번호의 관리는 사용자의 편이성이나 망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음

2. 정보통신 환경 변화

- 신규통신사업자의 급속한 확대 및 경쟁활성
 -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번호수요가 많아짐
 -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번호에서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 증대
 - WTO체제가 적용되는 '98년부터 내·외국인 사업자가 대거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번호수요도 급증할 것임

- 남북통일에 대비한 번호계획 수립 필요
 - 최근 남북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한에 국한된 번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 발생

-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에 의한 다수의 신규서비스 도입 예상

- 향후 정보통신 환경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번호관리체계 구축 필요
 - 통신시장 개방과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따른 신규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수용할 수 있는 번호관리체계 구축 필요
 - 남북통일을 대비한 지역간, 서비스간 형평성 있는 번호부여 방안 마련

- 국제동향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통신망의 효율적 구성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국제표준규격을 제정·권고
 - 선진각국은 미래 정보통신서비스 출현,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중장기 번호체계 검토중

II. 국내·외 번호관리 현황

1. 해외동향

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TU에서는 국제표준 번호구조와 최대 번호자리수를 권고
 - 번호수요의 확대 및 ISDN 시대에 대비하여 '97.1.1자로 최대 번호자리수를 12자리에서 15자리로 확대하도록 권고함

※ ITU 번호구조 권고안

국가코드	지역/서비스 식별번호	가입자 번호 (국번호 포함)
(1~3자리)	←-----국내번호-----→	
←-----국제번호(최대 15자리)-----→		

- 현재 데이터망 번호계획, UPT 번호계획, B-ISDN 번호계획 등 미래서비스에 대한 번호표준화 작업을 진행중

나. 북미(미국, 캐나다, 버뮤다, 카리브해 연안 15개국)

- 번호구조 : 전체 번호자리수를 10자리로 정형화하여 운영

1(0)	NXX NPA	NNX COC	XXXX SN
------	------------	------------	------------

○ 특징

- 지역 및 서비스 식별번호는 2XX~9XX에서 지역번호와 혼합하여 사용함
- 셀룰라서비스는 별도의 식별번호가 없고 시내전화 국번으로 사업자를 구분
- 시외 및 국제전화 사업자 사전지정방식 운영

다. 일 본

○ 번호구조 : 전체 번호자리수를 9자리로 정형화하여 운영

○ 특징

- 식별번호의 대부분을 기존 사업자인 NTT가 사용하고, 후발사업자에게는 긴 자리수의 식별번호를 부여

예) 국제전화 1사업자(KDD) : 001, 002

 2사업자(ITJ) : 0041

 3사업자(IDC) : 0061

- 이동전화의 경우 공통식별번호("030" 또는 "040")를 사용하고, 국번으로 사업자를 구분

예) 1사업자(NTT) : 030 - 23 - 12345, 2사업자(IDO) : 030 - 78 - 12345

- 우정성 산하에 "21세기를 향한 번호연구회"를 구성하여 번호체계 개선을 추진중

라. 영 국

○ 번호구조 : 서비스별 번호자리수 차등 부여(9~12자리)

○ 특징

- 번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식별번호를 추가 부여하여 신규가입자를 수용하였으나 체계성이 없음

예) 이동전화 1사업자(Vodafone) : 0374, 0385 → 0374, 0385, 0831, 0836

 이동전화 2사업자(Cellnet) : 0802, 0850 → 0802, 0850, 0860

- '95. 4월 지역번호를 3자리에서 4자리로 변경하였고, 서비스별 식별번호의 통·폐합 장기방안을 검토중임

마. 독 일

○ 번호구조 : 전체 번호자리수를 최대 10자리에서 12자리로 확대('97.1.1)

○ 특징

- 서비스 식별번호 및 지역번호 자리수 차등 부여(각 2~5자리)
- 통일이후 동독을 포함한 독일 전역의 지역번호계획 수립('93)

2. 국내현황 및 현행 번호관리의 문제점

가. 번호 관리체계

- 번호체계 관련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91.12.31 고시)
- 번호관리체계 현황
 - 서비스 식별번호는 정보통신부가 관리하고 국번 및 가입자번호는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단, 지역사업자의 국번은 사업자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 관리
- 번호구조 : 서비스별 번호자리수 차등 부여(최대 10자리:타망 접속번호 제외)

타망접속번호(0)	지역/서비스 식별번호	국번	가입자번호
(1자리)	(1~3자리)	(2~4자리)	(4자리)

나. 번호 부여현황

- 0XX(X : 0~9)계열은 서비스 및 사업자식별번호, 지역번호로 사용
 - 00X계열 : 국제전화식별번호

00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예비	KT 식별번호	DACOM 식별번호	국제전화 부가서비스	예비	예비	예비	국제전화 부가 서비스	온세 식별번호	KT 고국 교환원 서비스

※ 009는 '98년말까지 전환

- 01X계열 : 서비스 식별번호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예비	SKT 이동 전화망	SKT 무선 호출망	특수망 (항만전화 등)	데이터망	지역무선 호출망	한통 프리텔 PCS망	신세기 이동 전화망	한솔 PCS PCS망	LG 텔레콤 PCS망

- 02X~06X계열 : 지역번호

02	03X	04X	05X	06X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 08X계열 : 시외전화 사업자

080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KT 착신자 과금	KT 시외전화	데이콤 시외전화	예비	예비	예비	예비	예비	예비	예비

- 07X, 09X : 예비(남북통일 및 미래서비스 대비)

o 1XX계열(특수번호) 부여현황

10X	11X	12X	13X	14X	15X	16X	17X	18X	19X
통신 업무용	긴급사항 신고	민원신고	생활정보	전기통신사업용			예비	미아신고 및 감사원 신고	예비

※ 10X, 14X~16X계열은 당초 한국통신에서 관리하였으나 경쟁체제에 따른 다수 사업자 등장에 따라 '95.6월부터 정보통신부에서 관리

다. 현행 번호관리의 문제점

-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번호관리체계가 미흡함
 - 신규서비스 및 다수사업자가 출현하면 번호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 후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와의 식별번호 형평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추세이나
 - 현재의 번호체계는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유번호가 부족함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번호관리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였음
 - 통신시장개방 등 통신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번호확보 대책이 미비되어 있음
 - 남북통일 등 사회환경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번호관리체계 정립도 부족함
 - 지역번호의 자리수가 혼재되어 이용자들이 지역번호를 인지하기 어렵고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함

- 공공의 안녕과 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특수번호 관리체계도 정비해야 함
 - 현행 특수번호 부여상황은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 급증하는 특수번호의 이용욕구를 현행 부여방식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움

Ⅲ. 번호자원관리 정책방향

1. 번호관리 정책방향

-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의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번호체계를 구축
 - 수백개의 사업자가 공정경쟁할 수 있는 번호자원을 확보하여 선·후발 사업자간 또는 유사 서비스간 차별적인 식별번호 부여문제를 완화
- 향후 신규서비스 및 신규사업자 출현과 남북통일 등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 번호체계를 구축
 - 번호전환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예방 및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번호기반을 구축
- 정보통신서비스의 고도화와 글로벌화 추세에 부합할 수 있는 번호체계 구축

2. 번호부여의 원칙

- 자유경쟁체제하에서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식별번호 체계 정립
 - '97년말까지는 현행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98년부터는 서비스별 공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식별번호 자리수도 확장함
 - 서비스별 경쟁구도 및 가입자 수요 등에 따라 식별번호 자리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경쟁사업자간은 동일 자리수를 부여함
- 미래 서비스 출현에 대비한 중장기 번호체계 구축방안을 강구
 - UPT,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의 번호체계 구축을 강구
 - 번호의 이동성 확보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대비한 번호체계 환경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국번을 정부가 관리하는방안 등)

3. 부문별 부여 원칙

가. 국제서비스 부문

(1) 국제전화 서비스

- 향후 10개미만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예상됨
- 자동 식별번호는 잔여 예비번호중에서 기존 사업자에게는 3자리, '98.1.1이후 신규사업자에게는 4자리의 번호를 부여
예) 제4사업자 : 0051, 제5사업자 : 0052
- 부가서비스 번호는 현재 KT는 0079, 데이콤은 0030, 온세는 0036을 사용중이며, '98년부터는 003X와 007X에서 신규사업자의 부가서비스를 수용
예) 제4사업자 : 0070

(2) 국제회선 재판매 서비스

- '97년이후 수십개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예상
- 국제전화 부가서비스 번호(003X, 007X)중 일부 번호를 1자리 확장하여 모든 사업자를 수용
예) 제1사업자 : 00371, 제2사업자 : 00372, 제3사업자 : 00373

(3) GMPCS(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 향후 10개미만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예상
- ITU의 가상 국가코드인 "881"을 공통식별번호로 부여하고 사업자는 "881X"로 구분
 - 단, 국내 고유 식별번호가 필요할 경우 잔여 국제서비스 번호에서 4자리 부여도 고려예) 제1사업자 : 0041, 제2사업자 : 0042, 제3사업자 : 0043

나. 시내전화서비스 부문

- 향후 10개미만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예상
- 시내전화 번호계획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 식별번호 없이 서울은 4자리 국번, 지방은 3자리 국번으로 사업자를 구분
 - 국번은 사업자 구분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정부가 관리
 - 서울지역의 국번호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현 3자리 국번호는 4자리로 변경
예) KT : 2XXX - XXXX, 제2사업자 : 7XXX - XXXX
- 향후의 추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97년 신규사업자와 공정경쟁이 가능한 번호 체계 유지

다. 시외전화서비스 부문

(1) 시외전화서비스

- 향후 10개미만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예상
- '97년에 허가될 제3사업자(온세)에게는 "08X" 계열 3자리 번호 부여
- '98년 이후 신규사업자에게는 "08XY" 계열 4자리 번호 부여
예) 제3사업자(온세) : 083, 제4사업자 : 0841, 제5사업자 : 0842

(2) 시외전화회선 재판매 서비스

- 향후 수십개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예상
- 시외재판매 서비스는 망구성기술상 식별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에 대하여 "08XYZ" 계열의 5자리 식별번호로 수용
예) 제1사업자 : 08511, 제2사업자 : 08512
* 국제 및 시외전화 회선재판매사업자의 식별번호를 5자리로 통일

(3) 지역번호 광역화

○ 장기적으로 지역번호의 추가변경이 없고, 전체 번호자릿수를 10자리로 통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번호전환 계획 마련

○ 전국을 2개권, 5개권, 15개권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있음

- 2개권 : 남한 지역을 중부권(02), 남부권(05)으로 구분 (0N+8자리)

- 5개권 : 광역도 단위로 광역화 (0N+8자리)

- 15개권 : 광역시·도 단위로 광역화 (서울: 02+8자리, 기타지역: 0NX+8자리)

○ 광역화에 따른 고려사항

- 전체가입자의 최소 40% 이상 이용자가 지역번호 및 국번변경

※ 번호변경 가입자: 1,450만명(2개권 및 5개권), 928만명(15개권)

- 통화권 및 요금권과 연계하여 지역번호 광역화 정책정립 필요

· 지역번호만 광역화하고 현행 거리별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이용자 불편 및 요금체계 개선요구 증대 예상

- 지역번호 광역화에 따라 시외전화 시장축소 및 경쟁환경 변화 초래

- 광역화 추진시 현행 시외교환망 체계 전면 변경 필요

○ 검토의견

- 방안별로 추가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지역번호체계 개편이 시급하지 않으므로 금년말까지 지속 보완 검토

- 신규 시내전화 및 시외전화 사업자 서비스 개시이전 지역번호 광역화 기본 방향 확정

※ 번호전환에 따른 통신망 변경, 대국민 홍보 등에 장기간의 준비기간 필요

※ 해외 지역번호 현황

○ 선진각국에서도 번호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번호체계 개선 추진

- 미국: 국번부족 해소를 위해 동일한 지역에 지역번호 추가 부여

예) 애틀란타 지역의 경우 기존 지역번호 404 이외에 770 추가 부여

- 영국: “0”다음에 “1”을 추가하여 01XX 또는 01XXX로 변경
예) London: 071 ⇒ 0171, Southampton: 0703 ⇒ 01703
- 일본: 영국과 유사하게 “0”다음에 “8”을 추가하는 지역번호 변경 방안을 확정하였으나 시행시기는 유보

○ 영국, 호주 등에서는 지역번호 광역화 추진

- 영국: 현행 638개 지역번호를 2개 권역으로 광역화할 예정이나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결정은 유보
- 호주: '93. 9월부터 55개 지역번호를 4개권으로 광역화 추진중

○ 통신망의 고도화 및 접속품질 향상을 위해 번호자리수를 10자리로 통일

○ 주요각국의 지역번호 사용현황

구 분	인 구 (‘97년 추정)	전화가입자 (‘94년말 기준)	번호권	번호권당 인 구 수	번호권당 가입자수
미 국	268,189	156,769	120	2,234	1,306
영 국	58,687	28,388	638	92	44
일 본	125,672	59,870	540	233	111
호 주	18,550	8,850	4(추진중)	4,637	2,212
프 랑 스	58,433	31,600	5	11,686	6,320
한 국	45,652	17,646	144	316	122

라. 이동전화(셀룰라, PCS, FPLMTS) 서비스 부문

- 향후 10개미만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예상되므로, WTO 체제 출범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자간 번호자리수 차등 부여
 - 기존사업자 : 보유중인 3자리 식별번호 부여
 - 추가 신규사업자 : “08X” 계열 또는 여유 지역번호를 공통 식별 번호로 부여
 - 사업자는 4자리 식별번호 또는 4자리국번의 첫째 자리로 구분
 - 예1) 제6사업자 : 0891, 제7사업자 : 0892
 - 예2) 제6사업자 : 089 - 2XXX - XXXX, 제7사업자 : 089 - 3XXX - XXXX

마. 무선호출서비스 부문

- 향후 수십개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예상
- 신규사업자중 전국사업자는 “012”에, 지역사업자는 “015”에 수용하고, 4자리 국번을 부여하여 국번으로 사업자를 구분
 - 부산의 제3무선호출사업자는 015에 4자리 국번을 100국단위로 부여
- 신규가입자는 4자리 국번을 부여하고 기존가입자도 점진적으로 4자리 국번으로 전환
 - 예) 012 - 860 - 1234 ⇒ 012 - 2860 - 1234

바. TRS서비스 부문

- 향후 수십개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예상
- 시내전화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식별번호가 필요치 않으나 시내전화와 접속될 경우 식별번호 부여
- 식별번호 부여시 “013X” 계열의 4자리를 전국 및 지역사업자의 공통 식별번호로 각각 부여하고 사업자는 국번으로 구분
 - 사업자는 국번으로 구분
 - 예) 전국 1사업자 : 0132 - 321 - 1234, 지역 1사업자 : 0133 - 321 - 1234
 - 전국 2사업자 : 0132 - 421 - 1234, 지역 2사업자 : 0133 - 421 - 1234

사. 데이터통신서비스 부문

- 현재 데이터통신 식별번호로 014XY계열 100개중 70여개 예비번호를 보유하여 여유가 있음
- 유·무선 데이터통신 식별번호는 “014XY”계열 5자리 번호 부여

아. 미래서비스 부문(UPT,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 기본적으로 ITU 권고안이 확정되면 국제사업자 경쟁 환경 및 여유번호자원을 고려하여 식별번호 부여계획 수립

자. 특수번호

○ 본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번호 운영체계 확정

※ 서비스 식별번호체계 개선 방향

서비스		현행	WTO 출범이전	WTO 출범이후	최대 수용 사업자
국제 서비스	자동식별		3자리	4자리	10여개
	부가서비스	3자리	4자리		
	회선재판매		-	5자리	100여개
	GMPCS		-	4자리	10여개
시내전화		-	○ 시내전화 식별번호 부여계획 수립	-	10여개
시외 서비스	시외전화		3자리	4자리	10여개
	회선재판매		-	5자리	100여개
이동전화			3자리	4자리	15개
무선호출			○ 전국 사업자 : 012 ○ 지역 사업자 : 015		30여개
TRS		-	4자리		30여개
데이터통신			5자리		100여개
미래서비스 (UPT, 멀티미디어)			-	○ ITU안 확정이후 계획 수립	

4. '97 신규사업자 식별번호 부여계획

가. 시내전화 사업자 : 20×× ~ 21××

- 별도의 식별번호없이 국번으로 사업자를 구분
 - 서울지역은 4자리 국번을 기타 지역은 3자리 국번을 사업자별로 부여하고 국번은 정부가 관리
- 서울지역은 현행 3자리 국번을 4자리 국번으로 전환
 - 현행 2××국번앞에 “2”를 추가, 22××로 전환하여 한국통신기존가입자를 수용
 - 국번으로 미사용중인 0××, 1×× 앞에 “2”를 첨가하여 확보되는 20××, 21×× 등 200국을 사업자별로 10국 단위로 부여
 - ※ 향후 잔여 3자리 국번도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사업자별로 부여
- 기타지역은 : 현재 미사용중인 3자리 국번을 사업자별로 부여
 - 한국통신도 신규가입자에 대해 3자리 국번 부여

나. 시외전화 사업자 : 083

- 기존 시외전화 사업자와의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해 “083” 부여
 - 현재 추진중인 사전지정제를 적용

다. 무선호출 사업자 : 015 + 4자리국번(100국)

- 무선호출 지역사업자 공통 식별번호인 “015”를 부여하고, 4자리 국번중 100국을 부여
 - ※ 무선호출 국번은 '96.11월부터 4자리 국번체계 도입·시행

<전담반 구성내역>

□ 시내전화 식별번호팀

- | | |
|---------------------|-----|
| ○ 한양대 경영학과 | 장석권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환기술연구단 | 김한경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연구부 | 김현종 |
| - 통신개발연구원 시장경쟁연구실 | 강병민 |
| - 한국통신 네트워크 본부 | 배광호 |
| - 한국통신 시설운용실 | 윤용환 |
| - 데이콤 기술실 | 석치운 |
| - 한국통신프리텔 기술부문 | 서상길 |
| -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 | 이상학 |
| -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 허성욱 |

□ 특수번호 관리체계팀

- | | |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정보센터 | 송석재 |
| - 외국어대 정보통신공학과 | 홍진표 |
| - 통신개발연구원 시장경쟁연구실 | 피우익 |
| -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 | 김진연 |
| - 한국통신 전략영업본부 | 정화택 |
| - 데이콤 기술실 | 노갑신 |
| - SK 텔레콤 기술기획팀 | 박세명 |
| - 신세기통신 기획실 | 심창식 |
| - 나래이동통신 기술본부 | 신명섭 |
| -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 허성욱 |
| -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 이종각 |

□ 중장기 번호관리정책 방향

- | | |
|-------------------|-----|
| ○ 통신개발연구원 시장경쟁연구실 | 염용섭 |
| - 한양대 경영학과 | 장석권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정보센터
- 한국통신 네트워크 본부
-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송석재
윤종록
황의환
허성욱

<정보통신번호자원관리 정책방향 전담반 운영>

□ 구성

- 1997년 2월 기존의 '정보통신번호체계 개선 전담반'을 확대·개편
 - 통신망운영 전문가 등 전문인력 보강
- 시내전화, 특수번호 등 2개 분야로 세부반을 구성하고 이와 별도로 중장기 번호관리정책반을 운영

□ 경과

- 시내전화 전담반 회의개최(4차례)
 - 시기: 1997년 3 ~4월
 - 내용: ·해외 각국의 시내전화 식별번호 부여현황 파악
·통신망 부하 분석 등 기술적 문제점 검토
·번호변경시 사회적 간접비용 산출 및 이용자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 등
- 특수번호 전담반 회의개최(4차례)
 - 시기: 1997년 3 ~4월
 - 내용: ·기 사용중인 번호에 대한 통화량 분석
·번호자리수 확대 여부 검토
·다수사업자 공동사용 방안 강구
- 중장기 번호관리정책반 회의 개최(3차례)
 - 시기: 1997년 2 ~4월
 - 내용: 각 반의 반원 일부 및 전체 회의로 운영하여 종합토론 유도
- 각 분야별 시안 작성(1997년 4월)
- 전담반 핵심반원 회의개최(2차례)
 - 시기: 1997년 5월

- 참석대상: 정보통신부, 각반 팀장, 통신개발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관련사업자 실무책임자 등
- 내용: 각 반별로 시안 종합 검토